

2014년 1월 13일 보낸 편지입니다.

암벽 등반  
岩登り

“암벽 등반은 기초 훈련이  
”岩登りは、基礎訓練が

가장 중요한데 의욕만으로 덤뻏다가는  
一番重要だが、意欲だけであせったら

큰일 납니다.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大ごとになる。なぜ私にきかなかったのか?”

케리는 협상도 잊은 채 남사장에게  
ケリーは、協議を忘れたままナム社長に

암벽등반에 관한 설명을  
岩登りに関する説明を

하기 시작했다.  
しはじめた

- 조우성의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중에서 -  
- チョ・ウソンの〈私の話を聞いてくれる一人がいれば〉より -

\* 암벽 등반은 위험한 운동입니다.  
\* 岩登りは、危険な運動です

전문가로부터 잘 배워야 하고, 기초훈련도  
専門家からちゃんと学ばなければならず、基礎訓練も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교육도 기초훈련도 없이  
かならず、経なければなりません。教育も基礎訓練なく

의욕만으로 덤뻏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意欲だけで、焦ったら、命を失うこともあります

우리의 인생 행로도 암벽 등반과 같습니다.  
我々の人生行路も岩登りのようです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하고,  
だから、メンターが必要で

철저한 기초 훈련도  
徹底した基礎訓練も

필요합니다  
必要です

협상 (協商)  
[명사] 協商; 協議; 交渉; 話し合い; 渡(わ...  
잊다  
[타동사]  
忘れる.

記憶がなくなる。  
うっかりして気がつかない。

いわのぼり [岩登り]

암벽 등반; 록 클라이밍 (rock-climbing).

덤비다

[자동사]

(달려들다) つっかかる; 飛びかかる.

(일에) 急ぐ; 急ぐ; 焦る; 慌てる.

2014년 1월 14일 보낸 편지입니다.

홍내내기  
物まね

단순히  
単純に

홍내를 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真似をするという心ではなく

진심으로 경의를 갖고 상대를 바라보아야  
本当に敬意をもって相手を眺め

합니다. 겉모습만 따라 하지 말고 마음가짐을  
なければならない。表面だけによるのではなく、心がけを

홍내 내봅시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まねしよう。この時忘れてならないことが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거울이  
皆、まさに誰かの鏡に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なっているという事実だ

- 마스노 슌모의 《있는 그대로》중에서 -  
- 升野俊明<あるがまま>より -

\* 모든 것은  
\* 全てのことが

홍내내기에서 시작됩니다.  
真似することから始まります

홍내를 내다보면 비슷해집니다.  
真似してみれば、近づきます

닮아지고, 어느 순간 넘어서게 됩니다.  
似てきて、ある瞬間越えるようになります

누군가 거울 삼아 홍내내고 싶은 사람이  
誰か鏡にして、真似したい人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존경을 담아  
必ず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すべての心と尊敬をこめて

홍내를 내다보면, 어느새 내가 누군가의  
真似すれば、いつの日か私が誰かの

거울이 되어있는 모습을  
鏡になっている姿を

발견하게 됩니다.  
発見するようになります

흉내내기ものまね

마음가짐

[명사]

心得; 心掛け; 心構え; 氣構え.

心意氣; 意氣込み; 決心; 氣組み. [준말] 맘가...

거울

[명사]

鏡.

龜鑑; 鑑; 手本.

ちかづく [近づく·近づく] 발음 재생 매우중요

4. 닮아가다; 비슷해 [가까워] 지다. [가능형] ちかづ-ける [하1단 자동사] 5. [문학] →...

넘어서다

[타동사]

越す.

通り越す.

(難関を)切り抜ける.

삼다1

[타동사]

…にする.

(관계를 맺다) (關係を)結ぶ[持つ]; 迎える.

(縁を)組む.

2014년 1월 15일 보낸 편지입니다.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관계  
心から信じることができる関係

진심으로  
心から

믿을 수 있는 관계를  
信じることができる関係を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構築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しょう?

서로 갑옷을 벗어던지고 아무런 무장도  
お互い鎧を脱いで、どんな武装も

하지 않은 상태로 마주하면 됩니다. 벌거벗은  
しない状態で、向かい合えば良いです。裸の

자신을 그대로 맞부딪히는 것이지요. 진정한  
自分をそのままぶつけるのです。本当の

신뢰관계란 거기서 시작됩니다. 서로 모든  
信頼家計とはそこから始まります。お互いすべての

것을 벗어던지고 마주할 수 있는  
ことを、脱いで向かい合うことができる

장소를 만들면 좋을 것입니다.  
場所を作れば、いいのです

- 마스노 슌모의 《있는 그대로》 중에서 -  
- 升野俊明<あるがまま>より -

\*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관계.  
\* 心から信じることができる関係

누구나 진심으로 바라는 소망일 겁니다.  
誰でも心から望むでしょう。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 얻기가  
しかし人生を生きながら、そんな人を得るの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갑옷 안에 더 두꺼운  
とても簡単ではありません。鎧、さらにおも

갑옷이 덧입혀 있기 쉽고, 본래의 모습인가  
鎧が重なりやすく、本来の姿であるか

했는데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곤 합니다.  
思ったが、別の姿が現れたりします

서로를 믿고 품당 들어와 마주할 수  
お互いを信じて、とぶんと入って向かい合いことができる

있는 장소! 웅달샘이 그런 곳이길

場所! 小さな泉がそういうところであるのを

소망합니다.  
望みます。

서로

[부사] 互いに; 共に; お互いに; 相; 相互いに.

[명사] お互い; 双方. (=쌍방)

갑옷 (甲一)

[명사] 鎧. (=갑의(甲衣))

마주하다

[타동사] 向かい合わせる.

덧입혀加えて

2014년 1월 16일 보낸 편지입니다

겨울 사랑  
冬の愛

사랑하는 사람아  
愛する人よ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私たちに冬がないなら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何で温かい抱擁が可能なのか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この寒い震えがないなら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花はなんで咲いて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元気で香りを出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아아 겨울이 온다  
ああ、冬がくる

추운 겨울이 온다  
寒い冬が来る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震える冬の愛が来る

- 박노해의 시 〈겨울 사랑〉 중에서 -  
- パク・ノへの詩〈冬の愛〉より -

\* 겨울을 사랑해야  
\* 冬を愛して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冬を勝つことができます

겨울을 이겨내야 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冬を勝って、春を待つことができます

눈보라 치는 내 인생의 추운 겨울,  
吹雪く私の人生の寒い冬

내가 사랑해야 꽃피는 봄날의  
私が愛して、花咲く春の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香りをかぐことができます

포옹 (抱擁)  
[명사] 抱擁.  
기운

20140116. txt

[명사]

(천지 만물의) (天地間の) 氣; 精氣.

(원기·생기) 元氣; 生氣; 力.

(기미) 氣; 氣配; 空氣; 勢い.

ふぶく [吹雪く] 발음 재생

눈보라가 치다.



2014년 1월 17일 보낸 편지입니다.

기도  
祈り

기도란  
祈りとは

말하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話すことと聞くことです

깊은 침묵과 경배, 다음 순간 우리에게  
深い沈黙と礼拝、次の瞬間我々に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내하고  
どんなことが起きるのか、耐えて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待つ時間です

-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의 《천국과 지상》 중에서 -  
- ホルヘ・マリオ・ベルゴリオの〈天国と地上〉より -

\* 다른 길이 없습니다.  
\* 他の道はありません

항상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いつも祈る道しかありません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답입니다.  
祈りが力で、祈りが答えです

기도함으로 들리게 되고  
祈りで聞こえるようになり

기도함으로 열립니다.  
祈りで開きます

新教皇フランシスコ ホルヘ・マリオ・ベルゴリオ

경배 (敬拜)  
[명사] 敬拝.

2014년 1월 18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강운식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カン・ウンソク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선암사 소나무  
仙岩寺の松

눈물이 나면  
涙が出れば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汽車に乗って、仙岩寺に行きなさい

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仙岩寺の解憂所(便所)へ行って、思いっきり泣きなさい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葉っぱがハンカチをだして、涙を拭いてくれて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鳥が、胸の中に飛んできて鐘を鳴らす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선암사로 가라  
涙が出れば、歩いてでも仙岩寺に行きなさい

선암사 해우소 앞 등 굽은 소나무에  
仙岩寺の解憂所の前で、背中を曲げた松に

기대어 통곡하라  
寄りかかって、慟哭しなさい

- 정호승의 시 〈선암사〉 중에서 -  
- チョン・ホスの詩〈仙岩寺〉より -

\* 일상의 무게에 못 이겨 눈물이 날 때...  
\* 人生の重さに、勝つことができず泣く日...

모든걸 훨훨 다 버리고 싶어지는 막연한 그때...  
全ての道を、パッと捨ててしまいたい漠然としたその時...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괴롭고 버림받았다고  
私がこの世の中で、一番寂しく、苦しくて、見放されたと

느끼는 그 순간에도 선암사 소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感じるその瞬間にも、仙岩寺の松は生きています

선암사 해우소 앞 등 굽은 소나무가 꼭 아니더라도  
仙岩寺の解憂所の前の背中を曲げた松でなくても

우리 한 번쯤 무엇에 기대어 실컷 통곡해보는 것도  
我々一度くらいは、何かに寄りかかって思いっきり慟哭することも

좋을 듯하네요. 그리 울고 통곡하면 다시금  
いいでしょう。そんなに泣いて、慟哭すれば再び

희망에 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겠지요.  
希望にあふれた自信をあたりに見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소나무

[명사] [←솔나무] [식물] マツ(松); マツの木; 赤松.

해우소와 정랑 (廁神과 解憂所).

꺼내다

[타동사]

持ち出す; 引き出す.

(中のものを)取り出す.

(話を)切り出す; 始める.

鐘の音が響き渡る 발음 재생 (표제어: ひびきわたる)

종소리가 울려 퍼지다

통곡 (慟哭)

[명사] 慟哭; 大きな声をあげて悲しく泣くこと.

훨훨

[부사]

鳥が高く飛びあがってゆっくり羽ばたきながら飛ぶさま: ...

(扇を)ゆるゆるとあおぐさま: ぱたぱた.

着物をさっさと脱ぐさま: さっさと.

막연히

[부사] 漠然と.

외롭다

[형용사] 頼る所[身寄り]がなくて心細い; 寂しい; わ...

괴롭다

[형용사]

(몸과 마음이) 苦しい; 悩ましい; 辛い.

(곤란함) 苦しい; 困っている.

(성가심) 煩わしい; 面倒だ.

버림받다

[자동사] 捨てられる; 見放される.